

미국발 쇼크 국내 금융·실물경제 패닉

유동성 걱정할 단계 아니다

증시 안정화 주식 공매 금지

■ 정부, 미국발 시장 동요 차단 총력전

환율 급등·소비 위축... 지역 중소기업 '비명'

미국발 금융불안의 충격이 연일 금융 시장을 강타하면서 국내 실물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 제조업체들의 경우 환율급등에 따른 채산성 악화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8월중 국내 생산과 소비 활동 역시 급속히 냉각되는 등 경제 전반이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여기에 8월 들어 현재와 미래의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각종 지표가 크게 악화된 가운데 경상수지 적자폭도 사상 최대치로 불어나는 등 경기 하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과 배국환 2차관이 지난달 30일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 출석, 구제금융안 부결이라는 미국발 악재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 영향과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

◇환율급등 여파, 광주·전남 기업 '희비' = 환율불안으로 광주·전남지역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자동차와 가전제품 등 수출 비중이 높은 대기업들은 수익성이 개선된 반면, 대부분의 중소기업체들은 생산비 급증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환율불안의 여파로 원자재 수입 비중이 높은 광주·전남의 중소기업 및 여행업종 등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환율상승은 중소기업들의 생산비를 높이는 반면 설비투자를 위축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냉장고 부품을 생산하는 광주 하남산단내 A 업체 대표는 "텀스텐 등 원자재의 7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환율급등에 따라 매달 1천만원 가량의 추가 부담이 불가피해졌다"고 말했다.

광주·전남의 여행업계도 환율이 1천200원대를 넘어서자 망연자실한 표정이다. 그동안 저가의 패키지 상품개발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해 왔지만 최근 환율급등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다.

◇경기 급속 하강, 생산·내수 '곤두박질' = 지난달 30일 통계청에 따르면 8월 들어 국내 경기 상황과 향후 경기국면을 나타내는 지표가 지난 1981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7월째 동반하락세를 보였다.

8월중 현재의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지난달보다 0.2%포인트 하락해 7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또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해주는 '선행지수 전년동월비' 역시 전월보다 0.4%포인트 하락하면서 9개월째 하락세를 나타냈다.

또 8월 광공업생산은 지난해 8월보다 1.9% 증가하는데 그쳤다. 전년 동월대비 광공업생산

생산비 치솟고 설비 투자 엄두도 못내

내수·수출 동반 부진 가속...생산활동 급랭

증가율은 6월 6.8%로 떨어졌다가 7월 8.6%로 증가폭이 확대됐으나 9월 들어 다시 대폭 하락했다.

업종별로는 자동차 생산이 9.2%나 줄어든 가운데 컴퓨터와 식료품 생산도 각각 19.8%, 4.8% 감소했다.

◇내수부진 여파 생산활동 급랭, 수출둔화 불가피 =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수출은 9월 둘째 주까지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지만 현대차의 부분과업이 이달에도 이어지고 수출의 10.7%를 차지하는 대미 수출에도 적신호가 켜지면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여기에 최근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우리나라 수출 주력 지역으로 부상한 자원부국으로의 수출도 둔화될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다.

실제 전년 동월 대비 수출용 출하 증가율은 지난해 10월(19.2%)부터 올해 7월(12.6%)까지 10개월간 두 자릿수 증가율을 유지했지만 8월에는 6.7% 늘어나는데 그쳤다.

◇유가·환율불안 여파 경상수지도 '최악' =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8월 중 국제수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경상수지는 47억1천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1980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가장 큰 적자 규모다.

지식경제부는 경상수지 악화가 유가 변동과 선박 인도 시기 조정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국제유가 하락이 아직 원유도입 단가 인하로 연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유 등 석유제품 수출단가만 크게 낮아져 상품수지가 나빠졌다는 설명이다.

실제 지난달 두바이유 평균 가격은 배럴당



113달러로 한 달새 18달러나 하락했지만 원유도입 단가는 130달러로 전월의 131달러와 큰 차이가 없었다. 반면 국제 경유가격은 168달러에서 136달러로 급락했다.

통관상 지난달 수출된 선박의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지 않아 8월 경상수지에 반영되지 못하고 9월로 넘어간 수출액이 8억2천만달러나 되는 점도 상품수지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최정태기자 choice@kwangju.co.kr

美 하원 내일 금융구제 수정안 재표결

미국 금융위기 타개를 위해 7천억 달러 규모의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구제금융 관련법안이 지난달 29일(현지시간) 하원에서 예산을 깨고 부결돼 미국이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큰 충격에 휩싸였다.

이에 따라 미 하원은 구제금융관련 법안을 처리할 때까지 오는 11월 4일 선거에 대비하기 위한 휴회를 앞기로 결정하고, 일단 2일 본회의를 다시 열어 수정안을 상정, 표결을 실시하는 방침이다.

이같은 점을 감안할 경우 미 의회의 구제금융관련법안 처리는 빨라야 금주 후반에야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앞서 미하원은 전날 양당 지도부와 행정부가 금융구제안에 합의

함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상정, 표결을 실시했으나 찬성 205표, 반대 228표로 과반수 동의를 얻는데 실패했다.

공화당에선 의원 65명만이 찬성표를 던졌고 3분의 2인 133명이 반대했으며, 민주당에선 140명이 찬성표를 던지고 95명이 반대한 것으로 집계돼 공화당 의원들의 압도적 반대가 법안 부결의 결정적 요인이 것으로 드러났다.

Advertisement for 'Incheon Investment and Finance' (인촌투자재위원회) with contact information and a website URL.

A large advertisement for 'International Advisory Service' (인촌투자재위원회) featuring a background image of a person working at a computer. The ad lists services like '인촌투자재위원회' and '인촌투자재위원회' and provides contact details.